

“3중고 시달리는 농가 대책 세워라”

국회 민생대책특위 현안 질의 “교육비 절감해야” 한목소리

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어이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은 사람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민생특위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지하는 것도 문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형의 부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교육비도 가중돼 서민의 허리가 남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선에서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국가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대부분을 해주던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증제도로 바뀌어 다시 돌아가는 어렵다”면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해줌으로써 부담을 낮추는 현재의 제도가 낫다”고 답했다.

우 차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9월 하순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유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에 앞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변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 보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발이 덜해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쇠고기 국조... 쟁점된가

설거지론 등 ‘네 탓’ 공방 예고

미국산 안전성·추가협상 실효성 논란도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제택을 마무리하고 1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국정조사에서는 이른바 전, 현 정부 책임론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추가협상의 실효성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책임론 공방=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설거지론’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아야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현 정부는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17일 한덕수 당시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12월17일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방침을 정해놓고 결단은 다음 정부로 미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선물’,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의혹을 제기하며 강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노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간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현 정부가 정상회담 선물용으로 대통령 방미에 앞서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통째로 내줬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추가협상 실효성 논란=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품질평가프로그램(QSA)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QSA가 자율규제이니만큼, 미국 수출업체가

이를 어거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도 집중 도마 위에 올려 놓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30개월 이상 뿐 아니라 30개월 미만 쇠고기도 결코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근거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따지고 넘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광우병 위험 과장 보도 논란을 빚은 MBC ‘PD수첩’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비록 ‘PD수첩’ 관계자들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PD수첩’ 보도가 ‘광우병 과장’의 주요 진원지가 됐다는 판단에서 보도내용의 오류를 부각시켜 국민의 불안 가중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쇠고기 수입조건 통상마찰 부른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호주·뉴질랜드 비해 특혜” 주장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이 뉴질랜드나 호주 등 다른 나라 쇠고기의 수입 조건에 비해 미국 측에 특혜를 부여,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지난달 31일 제기됐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출 중단은 즉시 요구할 수 없는 반면 뉴질랜드와 호주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경우 광우병 ‘1회 적발시’ 즉시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수입 검역사 및 규제 조차’ 24조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유통업체장은 개선이 취해질 때까지 작업이 중단’조치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난 6월28일~7월3일 뉴질랜드와 칠레산 쇠고기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되자 관련 수입조건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잠정 수출중단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유·초등·1차(11월 2일), 2차(11월 16일)시행 / 중등·1차(11월 9일), 2차 시험(12월 14일) 시행예정

관심없는 공부엔 당비일 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곽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대모집!**

곽내영교육학 현재 상임 교수 **개강 9월 5일** **곽내영고시학원** **문의 529-0090**

http://www.naeyoung.com

유·초·중등 임용고시의 모든것!

새롭게 개편된 3단계 시험제도 - 적응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매주(화,금) 11시, 3시, 7시(임용가이드제공)

- 처음시작에서 최종합격까지 전문상담을 통한 합격 프로그램 제시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 곽내영고시학원은 교원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 합니다.

파격! 破格! 획기적인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최소비용!으로 최고명강(最高名講)을!

토마토TOEIC 해커스TOEIC 맨투맨 영어 **수강증 1개로**

외국어 영어회화 TOEIC Speaking 중국어 일본어 **2개 강좌 동시수강!**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www.donga.tv

= 소방 방재청은 인력이 부족한 맞교대 격무부서에 올해안에 2,228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한다 =

7.9급 공무원 합격

강좌직종: 행정부처원, 경찰교보, 보복군토, 군전, 행정부처원, 경찰교보, 보복군토, 군전

하반기 시험 **개강** **합격수강회원모집**

8월 1일(주·아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 6개월(총)회원 80만원
- 1년(총)회원 120만원
- 한인시까지 170만원

www.mdgosl.co.kr **222-4560**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상담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고용보험 가입자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사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수강료의 80% 환급
▶ 시험: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월 26일 7월 문제풀이특강 9월 총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국비무료**

원서접수 8월19~8월27일 8월 핵심이론+단원별 문제이해 10월 동형 모의고사+일일 단기특강 **고용보험 환급과정**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제)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1위 ◆ 신해협객지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특강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학원1건, 오정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